PGA 시즌 첫 메이저대회 오늘밤 개막 | 82번째 마스터스가 더 특별한 이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제82회 마스터스 개막을 하루 앞둔 4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연습 라운드 14번 홀에서 티샷을 날리고 있다. 부활을 노리는 우즈 곁에는 수많은 갤러리들이 몰려들어 그의 플레이를 유심히 지켜봤다. 오거스타(미 조지아주) | AP뉴시스

3년만에 돌아온 우즈, 구름관중에 응답할까?

아름답지만 '살벌한 코스' 오거스타
11~13번홀 '아멘 코너' 최고 볼거리
원가 20만원 그린재킷, 우승 땐 7억↑
87명 별들의 대결…전세계 시선집중

미국남자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는 특별함 그 자체다. 다른 대회에 비해 참가자격이 까다로워 참가 인원 자체가 적다. 최고의 선수들만이 무대를 밟을 수 있다. 또한 매 대회가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7435야드)에서 열리는데 경치는 수려하지만 어렵기로 정평이 난 코스다. 우승자에게는 주어지는 그린재킷과 전년도 우승자가 대접하는 '챔피언스 디너' 등 다양한 전통들이 특별함을 더해준다.

●까다로운 참가 자격

5일(한국시간)부터 시작하는 올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87명뿐이다. 그 만큼 참가자격이 까다롭다. 19가지 중 한 가지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격을 갖춘 선수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우선, 마스터스 역대 우승자는 자동 출전이 가능하다. 마스터스를 제외한 다른 메이저대회의 경우 5년 이내 우승자만이 참가할 수 있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자는 3년 이내만 유효하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전년도 마스터스 12위 이내, 마스터스 제외한 전년도 3개 메이저대회 4위 이내, 전년도 골프 세계랭킹 50위 이내 등 기준이 만만치 않다. 대회 주최 측이 지정한 아마추어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도 출전이 가능하다. 그렇다보니 150명 내외로 펼쳐지는 다른 메이저대회에 비해 소수 정예로 대회가 진행된다. 최고의 선수들만이 출전할 수 있는 대회여서 경기력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아름답지만 험난한 코스의 오거스타

오거스타 골프 클럽은 나무가 많고, 다양한 꽃이 심어져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그래서 각 코스는 꽃과 나무의 이름으로 명명돼 있다. 그러나 코스는 '살벌'하다. 유리처럼 미끄러운 그린 등으로 악명이 높다. 화이트 도그우드, 골든벨, 아젤레아 등으로 이름이 붙은 11~13번 홀은 고난이도의 코스로 유명하다. 이 코스를 지나는 선수들이 무사히 잘 경기를 마칠 수 있게 기도한다는 뜻에서 '아멘 코너'라고 불리기도 한다. 선수들의 경기운영능력, 정신력, 기량 등으로 우승자가 결정되는 만큼 최고의 선수만이 대회 우승컵을 가져갈 수 있다. 올해 대회는 오거스타에서 열리는 82번째 마스터스다. 1934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에는 1943~1945년까지 3년간은 제2차 세계대전 여파로 개최되지 않았다. 다른 메이저대회에 비해 짧은 역사지만 팬들의 관심도는 최고다.

●전통의 고수

마스터스 우승자에게는 그린재킷이 주어진다. 이는 마스터스의 상징과도 같다. 전년도 우승자가 새로운 우승자에게 그린재킷을 입혀주는 걸 전통으로 삼았다. 하지만 1996년 잭 니클로스가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최근에는 우승자가 직접 착용하고 있다. 그린재킷의 원가는 약 2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승자가 입는 순간 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른다. 7억원 정도에 경매가 이뤄진 적이 있다. 또한 전년도 우승자가 주최하는 챔피언스 디너도 늘 관심사다. 매 대회를 앞두고 전년도 우승자가 역대 우승자들을 초청하는 저녁 만찬을 개최한다. 메뉴를 직접 선정하고 비용도 디펜딩 챔피언의 몫이다. 지난해 대회는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가 우승을 차지해 올해 챔피언스 디너를 진행했다. '점프시트'라고 불리는 일체형 하얀색 옷을 캐디들이 반드시 입어야 하는 전통도 있다. 오거스타에서 일하는 캐디들이 선수들을 따라다니다 1983년부터는 선수들이 고용한 캐디가 경가에 투입될 수 있게 룰이 변경된 바 있다. 대신 유니폼은 고수됐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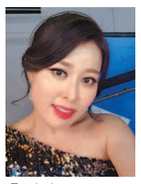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내가 왜 떴게?

제 다리가 길어졌어요



홍지민

홍지민 다이어트: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비법은 늘 화제의 대상이다. 이번엔 홍지민이다. 훈훈한 몸매의 대명사였던 홍지민이 다이어트 여신으로 거듭났다. 홍지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듯 보이는 사진들을 올렸다. "내 다리가 이렇게 길었구나. 나에게도 쇄골뼈가 있었구나. 나에게도 목이 있었구나 ㅋㅋ 큰일 났네 자꾸 자랑하고 싶어져서"라는 글도 곁들였다. 다이어트 비결을 묻는 팬들을 위한 댓글도 남겼다. 러닝머신 스피드 5.5에 놓고 30분 이상 걷기, 칼로리 낮지만 입에 맞는 음식, 핑거루트 다이어트 보조제, 그리고 저녁이랑 야식, 금주. 네에, 그렇습니다. 기승전 야식금지죠.

누가 먼저 들이댔을까



김흥국

김흥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가수 김흥국이 성추행 추가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제보자를 파악했으며, 불순한 의도에서 제보한 것을 알게 됐다"고도 했다. 사실 확인없이 한쪽 주장만을 실은 매체도 고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매체는 김흥국이 2002년과 2006년 월드컵 당시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제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5일 김흥국을 조사할 방침이다. 미투 제보가 향후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느 쪽이 들이댄 걸까.

대한민국은 천재공화국?

중·고생 논문 공저자: 대한민국은 천재공화국이다? 10대 중·고교 학생들이 대학교수와 논문의 공저자로 등록된 사례가 쏟아졌다. 49개 대학에서 138건이나 확인됐다. 5편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오른 학생도 있었단다. 대학교수 86명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말 중·고교 학생들이 교수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했을까. 교수들이 자녀들의 대입 스펙 관리를 위해 공동저자로 등록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대가 14건으로 1등이다.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로 드러난 논문이 대입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입학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그래도 혹시 아버지와 양자역학에 대한 노벨상급 논문을 쓴 중학생이 실제로 있을지도 모르니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아침에 주문한 팬티, 오후에 입는다

쿠팡: "배송을 몇 시간 내에 완료하는 물류 환경을 구축하겠다". 김범석 쿠팡 대표의 공언이다. 미국 CNBC는 최근 방송에서 쿠팡을 한국의 유니콘 기업으로 소개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0억달러, 설립 10년 이하의 스타트업을 지칭한다. 쿠팡의 기업가치는 약 5조 3000억원. '아마존 킬러'로 묘사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 방송에서 '엔드 투 엔드(End to End)' 배송서비스를 소개했다. 배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빠른 것도 좋지만, 과속은 노노! 감동도 배달해 주세요.

슬럼프 탈출 우즈, 연습라운드서 이글 2개

한국선수론 김시우만 유일 초청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제 82회 마스터스가 5일 밤(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는 개막 이전부터 관심이 뜨거웠다. 부상과 슬럼프를 극복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1·미국)가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지에 전 세계 골프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즈는 1·2라운드에서 마크 리슈먼(호주), 토미 플릿우드(잉글랜드)과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3년 만에 마스터스에 복귀하는 우즈는 연습 라운드에서 이글을 2개나 기록하며 좋은 감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렸다. 우즈는 이전까지 20차례 마스터스에 참가해 4번의 우승을 차지한 경력이 있다. 마지막 우승은 2005년이었다. 유리 같은 오거스타 그린에서 그림 같은 퍼트를 자주 선보였던 우즈가 그 감각을 재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부상과 구설 등으로 긴 슬럼프를 겪으며 2013년부터 8월 이후 각종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그는 올해 3월 PGA 투어 밸파스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에 오르며 부활을 알렸다.



타이거 우즈(왼쪽)와 필 미켈슨이 4일(한국시간) 제82회 마스터스 연습 라운드 도중 11번 티 박스에서 함께 웃고 있다. 오거스타(미 조지아주) | AP뉴시스

지난 대회 우승자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는 세계랭킹 2위 저스틴 토머스(미국), 지난해 US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자 닥 레드먼(미국)과 한 조에서 경쟁한다. 지난해 부상으로 마스터스 출전을 포기했던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은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라파 카브레라 베요(스페인)와 함께 라운드 한다.

한국선수로는 유일하게 오거스타에 초청을 받은 김시우(23·대한통운)는 재미교포 아마추어 덕 김, 샌디 라일(스코틀랜드)과 1·2라운드를 함께 하게 됐다. 지난해 제5의 메이저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시우는 2년 연속 마스터스에 출전하게 됐다.

최용석 기자

넷마블, '방탄소년단' 소속사에 2014억 투자

'빅히트' 지분 25.71%…2대주주로
"게임·음악 시너지 확대 위한 투자"

넷마블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와 힘을 합쳐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다.

넷마블은 4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에 2014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를 통해 넷마블은 빅히트의 지분 25.71%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글로벌 게임과 음악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양사의 사업적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게 넷마블 측 설명이다.

넷마블은 지난해 매출 2조4248억원을 기록하며 단일 게임사 연매출 2조원 시대를 열었다. 특히 그중 해외매출이 1조3180억원(54%)을 차지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번에 투자를 한 빅히트의 경우 방탄소년단을 통해 전 세계 대중음악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지난해 방탄소년단의 앨범 '러브 유어셀프'가 149만장 이상 팔리는 등 월드투어에서도 55만 명을 동원하며 음반, 음원, 공연 등 모든 분야에서 수익을 냈다.

양사는 이번 투자에 앞서 이미 방탄소년단을 소재로 한 게임 제작 계획도 발표했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2월 이종 문화 콘텐츠 융합을 통한 새 장르 개척을 강조하면서 영상과 화보를 활용한 실사형 시네마틱 게임 'BTS WORLD'를 공개했다. 이 게임은 상반기 중 서비스할 계획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빅히트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며 "이번 지분 투자를 통해 넷마블과 빅히트 간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빅히트 관계자도 "재무적 관점과 전략적 관점을 함께 갖춘 투자자와 함께 해 더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게임산업에서 이미 지적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넷마블과 함께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준혁 넷마블 의장과 방시혁 빅히트 대표는 친척 관계로 알려져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